

영어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

- 학습기간, 성별, 호감도 및 자신감을 중심으로

이법규, 어지혜, 이민영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정부 수립 후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따라 개정되어 온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총론의 취지에 맞추어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 평생 학습자 육성과 학습자 중심 교육'을 영어 교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영어교육의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영어에 대한 친숙함과 자신감을 심어주며, 이러한 흥미와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지속적 흥미와 자신감은 향후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 및 그 이후의 지속적 영어학습으로 이어져 영어구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과거 주입식 교육, 문법 번역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파악하고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학습의 주체를 교사라고 보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학습자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들을 활용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 전략을 세워 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고 또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학습 환경에 있어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편안한 학습 환경이 학습자에 따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문헌 연구로 고은하(2003)는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학습자 중심 영어 교육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박정숙(1998)은 영어회화 수업에서 심리적 요소와 학습 동기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심경미(2004)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억압감, 불안감 등이 영어 학습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하며 영어 학습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중고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학습기간과 나이, 성별, 영어에 대한 호감도 및 자신감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을 비교, 분석 하였다. 송우 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명과 서울 지역 중, 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06년 10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6개 항목으로, 학습자에게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묻는 7개의 문항과 학습자가 영어 학습에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얼마나 중요시 하고 있는지를 묻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9개의 문항들은 자리배치, 오류 수정,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배분, 수업 중 비자발적인 영어 발화, 목표어만을 사용한 수업, 수업 후의 느낌 회고 등의 각 항목들에 대해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었

다.

첫째, 학습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 설문 조사에서 학습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사춘기의 중·고등학생 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을 기준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남, 여 모두 대체로 수업 중 편안한 심리상태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중요도가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93%가 중요하다고 답해 남자보다 여자가 심리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영어 학습에 대한 호감도와 자신감을 기준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영어에 대한 호감도 및 자신감이 높을수록 영어 학습에 있어 심리적인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기간, 성별, 호감도 및 자신감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르게 반응하고 기대할 것이라는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학습자가 대체적으로 영어학습 환경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혹은 막연하게 생각해 오던 학습자의 정의적인 측면이 얼마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춘기에 접어든 중·고등학생 일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학습에 대한 호감도 및 자신감이 높은 학생의 집단에서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게 반응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후행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

우리 영어교육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암기위주,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의 모순과 학습자를 단지 교육의 객체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학습자가 지식의 공동 구성자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학습에 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더 나아가 학습자가 전인(Whole person)으로서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까지 고려돼야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감안한 수업의 형태가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외형적 변화에서부터 이제는 내면의 영역과 실천에까지 성실히 이뤄져야겠다.

이범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9-11번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전화: 016-9344-8889

이메일: jesusbrian@igse.ac.kr

이지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9-11번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전화: 010-7271-2876

이메일: nefervictoria@igse.ac.kr

이민영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9-11번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전화: 011-9932-4306

이메일: millie@igse.ac.kr